

“터져라! 멀티포...이뤄라! ‘40-40’”

KIA 김도영, 오늘 시즌 마지막 경기서 ‘꿈의 대기록’ 도전

‘뜨거운 팬心’ 안고 38홈런 중 16개 쏘아올린 홈구장 출격 상대는 4홈런 때려낸 NC... ‘정면 대결’ 공언 기대감 커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이 40(홈런)-40(도루) 대기록 달성을 위한 막판급 피치를 끌어올린다.

김도영은 3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올 시즌 마지막 경기 NC전에서 40홈런도전에 나선다.

29일 현재 38(홈런)-40(도루)를 기록 중인 김도영은 KBO 역대 2번째이자 국내 타자 최초로 40-40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30(홈런)-30(도루) 상위 버전인 40-40은 지난 2015년 외국인 타자 에릭 테임스(전 NC 다이너스)가 KBO 최초로 개척한 전대미문의 업적이다.

지난 23일 삼성전 이후 4경기째 홈런을 추가하지 못한 김도영에게 남은 기회는 이제 정규리그 NC전 단 1경기다.

40도루는 지난 23일 채우면서 대기록 달성 관건은 이제 2개의 홈런에 달려있다.

하지만 홈런을 마음 먹었다고 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한 경기 2개의 홈런을 날리는 것은 쉽지 않은 노릇이다.

그래도 올 시즌 2번의 멀티홈런을 기록한 바 있는 만큼 몰아치기에 능한 김도영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다.

대기록을 앞둔 압박감 때문에 화력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타격감은 좋다. 앞선 5경기에서 4할대(0.474) 타율과 4경기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멘트를 휘둘렀다.

홈런과 3루타도 1차례씩 때리는 등 언제든지 대포를 추가할 수 있는 장타력도 여전히 살아있다.

또한 경기가 열리는 익숙한 환경의 홈구장은 그의 방망이에 힘을 더욱 실어줄 수 있다.

김도영은 이번 리그 38개의 홈런 중 16개를 홈에서 터뜨렸다. 특히 주요 대기록을 수립할 때마다 홈런으로 완성했다. 통산 5번째 전반기 20(홈런)-20(도루)의 역사적인 20번째 홈런을 시작으로, 네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만든 홈런과 한 시즌 최다 득점 신기록 홈런이 나온 곳도 모두 광주 구장이다.

30일 만나는 NC는 김도영이 올해 9개 구단 중 가장 강하게 두들겼던 팀이다. 15경기 4개의 홈런을 포함 53타수 23안타를 휘둘러 4할대의 타율(0.434)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NC는 볼펜을 추가동해 ‘볼펜 데이’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올 시즌 탈삼진 타이틀왕을 거머쥔 카일 하트가 일찍 시즌을 마치기로 하면서 NC는 마땅한 선발자원이 없는 상태다.

대기록에 도전하는 김도영에게는 희소식이 나 다행이다.

이미 KS 직행을 확정된 KIA는 김도영의 대기록 달성에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김도영은 월간 최초 ‘10홈런-10도루’, KBO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등 역대급 기록들까지 작성하며 정규 시즌 MVP 등극도 띠놓은 당사이다.

그럼에도 야구팬들은 여전히 성에 차질 않는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40(홈런)-40(도루) 대기록까지 세워 국내 타자로서 자존심을 높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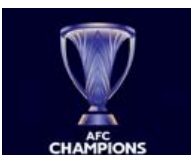
과연 김도영이 기적같이 40(홈런)-40(도루) 대기록을 수립할 수 있을지 야구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주흥철 기자



막강 화력으로 가와사키도 넘는다

광주FC, 다음달 1일 ACLE 2차전 원정 가와사키전

최강 엔트리 중무장...사상 첫 일본 원정 새 역사 쓴다 아시아 관통하는 ‘이정효 축구’ 존재감, 실력으로 증명



광주FC가 구단 역사상 첫 일본 원정길에 올라 승리에 도전한다.

광주는 오는 10월 1일 오후 7시 일본 도도리키 육상 경기장에서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이하 ACLE) 그룹 스테이지 2차전 원정경기를 치른다.

지난 17일 가졌던 ACLE 1차전 홈경기에서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7대3으로 대파하며 조 선두에 오른 광주는 이번 원정 경기 승리로 2연승을 달성해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오른다는 각오다.

현재 K리그 7위에 위치해 파이널B가 확정된 광주는 강등권 팀과의 격차를 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정효 감독은 “ACLE도 중요하지만 리그의 안정적인 순위 확보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로테이션 가동을 시사했다.

하지만 로테이션 멤버를 출전시킨 코리야컵에서 K리그 선두 울산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던 만큼 누가 출전하더라도 광주의 팀컬러와 전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ACLE 1차전에서 주장으로 출전해 든든한 존재감을 선보인 이민기와 베테랑 수비수 이요름이 후방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공격에서는 개인기와 돌파력을 두루 갖춘 오후성과 김한길의 중용이 예상된다.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홈경기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광주를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4-1-2-3, 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가와사키는 9년 차 베테랑 골키퍼 정성룡이 현재까지도 J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활약 중이며 리그에서 14골을 기록 중인 젊은 공격수 야마다 신의 득점 능력이 눈에 띄는 팀이다.

그러나 가와사키는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동시에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허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대의 수비진을 잘 공략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희중 기자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의 ACLE 1차전에서 골을 터뜨린 아사나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광주·전남 15명 1차 관문 통과

2025 양궁 국가대표 1차선발전...남녀 각 64명 가려져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공사 15명이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태극마크를 향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28일 경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에서 끝난 2025 양궁 국가대표 1차선발전에서 전 국가대표 김수린(광주시청·3위),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10위),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승운(남구·11위), 최미선(광주은행 텐텐양궁단·11위)이 ‘그 실력 그대로’ 6명이 경쟁하는 2차선발전 진출했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14위)과 2024 태극마크 오예진(광주여대·21위), 이은경(순천시청·25위)도 가볍게 64명에 합류했다.

이밖에 여자부에서는 김이안(광주은행텐텐양궁단·31위), 유시현(순천시청·51위), 이가영(광주시청·60위), 탁혜윤(순천대·63위)이 이름을 올렸고, 남자부에서는 이원준(조선대·42위), 진효성(44위)이 2차 도전을 이어간다. ‘고교생 공사’ 박주혁(광주체고·47



여자부 3위로 1차 관문을 통과한 김수린

위)과 조한이(순천여고·47위)의 ‘무한 도전’도 기대를 모은다.

1차 관문을 통과한 남녀 각 64명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청주 김수녕 양궁장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2차선발전에서 역배점을 안고 토너먼트와 기록경기를 펼쳐 최종 남녀 각 20명을 가린다.

한편, 남녀부 1위는 2024 파리올림픽 남녀 3관왕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체대)이 차지했다. /박희중 기자

‘어깨 부상’ 김하성, 결국 수술대...PS 출전 무산

시즌 후 FA 대박 ‘떡구름’

김하성(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결국 어깨 수술로 시즌을 마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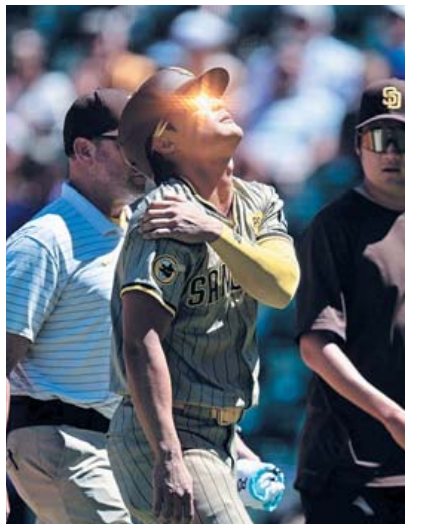
포스트시즌 출전이 무산된 것은 물론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추진할 장기 계약에도 떡구름이 끼었다.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의 마이크 실트 감독은 29일 애리조나 다이나모스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김하성의 시즌이 끝났다고 발표했다. 이어 몇 분 후 김하성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어깨를 수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성은 8월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중 상대 투수의 견제 때 1루에 슬라이딩하고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

이후 어깨 염증 증세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복귀를 준비했지만, 회복 속도가 더디 근심을 안겼다.

유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송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팀에 합류하지 못했고 끝내 수술대에 오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열린 콜로라도와 경기 도중 김하성이 다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지면서 더그아웃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갑작스러운 수술로 김하성의 시즌 후 행보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김하성은 시즌 후 FA로 나와 1억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꿈꿨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깨 수술로 협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연합뉴스



제29회 김창환배 및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에페 단체전 우승과 사브르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도청 펜싱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청 女에페, ‘김창환배’ 단체전 2연패

전남도청 김향은·최세빈·전수인, 해남군청 권오민 태극마크

전남도청 여자 에페팀이 제29회 김창환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결승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은 지난 27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단체전 결승에서 ‘맞수’ 계룡시청을 45대40으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사브르 단체전은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희중 기자

호남대(45대44), 인천중구청(45대36), 양구군청(45대31)을 연파하고 결승에 오른 전남도청은 대전시청(43대45)에게 2점차 패배를 당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올해 열린 각종 대회 포인트를 합산해 전남도청 에페 김향은, 사브르 최세빈·전수인, 해남군청 권오민이 2025년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박희중 기자

“금남로를 황금빛으로 물들여라”

광주FC, 가와사키전 총장축제 연계 거리응원전

창단 첫 출전한 ACLE 홈경기에서 대승을 이뤄낸 광주FC가 이번엔 길거리 응원에 나선다.

광주는 29일 ‘내달 1일 오후 7시 전일빌딩245 앞 길거리에서 열리

는 가와사키 프론탈레와의 원정경기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대표 축제인 추억의 총장축제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300인차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문화 공연과 경품도 증정된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현장 응원을 못 하는 팬들에게 최고의 관람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었다”며 “지역 대표 축제인 총장축제도 홍보하고 시민들과 응원전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